

# A3005 차이나인덱스(INDEX VA)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차이나인덱스(INDEX VA)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차이나인덱스(INDEX VA)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7324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운용기간	2022.07.01 ~ 2022.09.30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중국 상장주식을 주식인덱스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자와 자산배분을 통한 해당지역의 대표 주식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정 등을 통한 알파획득을 추구합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차이나인덱스(INDEX VA)	자산 총액 (A)	1,369	1,182	-13.63
	부채 총액 (B)	27	1	-97.39
	순자산총액 (C=A-B)	1,342	1,182	-11.97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1,028	1,028	0.02
	기준가격 (E=C/D × 1000)	1,305.46	1,148.98	-11.99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MSCI China Net Total Return지수는 9/30 종가 기준 전분기 대비 -22.50%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분기 중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미중 대만 문제 충돌, 부동산 리스크,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등의 악재가 겹친 모습이었습니다. 당국의 MLF 및 LPR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 노력에 반등하는 듯했으나 분기 말 미 8월 CPI 하락 예상이 크게 여긔나며 재차 하락했고, 글로벌 강달러 현상 속 위안화가 달러 당 7위안을 돌파하는 등 위안화 절하 지속에 하락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동 펀드가 각각 23% 수준으로 편입하고 있는 ChinaAMC CSI 300 Index ETF의 경우 중국 본토 A주에만 구성되었으며 -19.46% 하락했고, 중국 본토, 미국, 홍콩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iShares MSCI China Index ETF는 미국 ADR 상장폐지 리스크에 더욱 부진하여 -23.74% 하락했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4분기 중국 증시는 경기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되돌림 시도가 출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은 제로코로나 기조 유지 속 국지적 봉쇄를 반복하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은 역성장(9월, 전년대비 -17%)을 기록하는 등 하방 압력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수요 약화도 우려스러운데, 8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1%에 그치며 컨센서스인 +12.3%에 크게 못미쳐 둔화가 본격화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10월 16일 예정된 20차 당대회가 증시 반등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빨라도 내년 양회(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20차 당대회 마무리 후 점진적 방역 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있으나 하락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당대회 이후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추가 정책 대응이 예상됩니다. 연내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4분기 경기 회복 모멘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차이나인덱스(INDEX VA)	-11.99	-12.53	-18.97	-19.3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56)	(-1.28)	(-2.27)	(-1.82)
비교지수(벤치마크)	-10.43	-11.25	-16.70	-17.53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 Total Return Index (NET) X 22.5% + 상하이 선전 CSI 300지수(HKD) X 22.5% + K5중합채권지수 X 4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차이나인덱스(INDEX VA)	-19.35	-20.19	-10.33	-15.2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2)	(-3.38)	(-5.00)	(-9.13)
비교지수(벤치마크)	-17.53	-16.81	-5.33	-6.08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 Total Return Index (NET) X 22.5% + 상하이 선전 CSI 300지수(HKD) X 22.5% + K5중합채권지수 X 4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추적오차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Az 파워인덱스vs차이나인덱스형	4.77	5.67	5.99

주)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에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기타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	-	-	31	-42	-	-	-	-	1	-	-8
당기	3	-	-	-109	-59	-	-	-	-	-	5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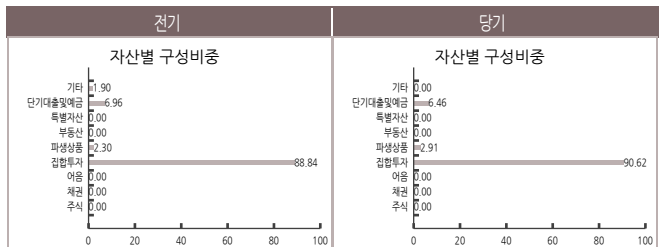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기타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HKD	0	0	0	272	0	0	0	0	0	1	0	274
(182.20)	(0.00)	(0.00)	(0.00)	(23.04)	(0.00)	(0.00)	(0.00)	(0.00)	(0.00)	(0.12)	(0.00)	(23.16)
USD	0	0	0	267	0	0	0	0	0	1	0	268
(1,430.20)	(0.00)	(0.00)	(0.00)	(22.56)	(0.00)	(0.00)	(0.00)	(0.00)	(0.00)	(0.07)	(0.00)	(22.63)
KRW	0	0	0	532	34	0	0	0	0	74	0	641
(1.00)	(0.00)	(0.00)	(0.00)	(45.01)	(2.91)	(0.00)	(0.00)	(0.00)	(0.00)	(6.28)	(0.00)	(54.21)
합 계	0	0	0	1,071	34	0	0	0	0	76	0	1,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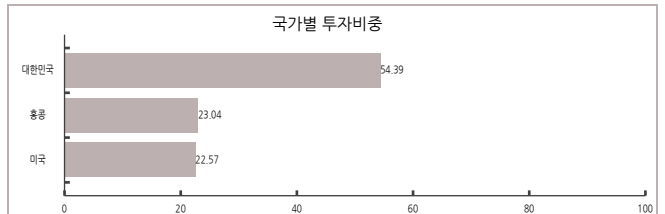
※ ( ): 구성비중



###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대한민국	54.39	6		
2	홍콩	23.04	7		
3	미국	22.57	8		
4					9
5					10



### ▶ 한해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용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용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2.09.30)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2.07.01 ~ 22.09.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22.07.01 ~ 22.09.30)
100.0	97.9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미국달러 F202210	매도	37	530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45.01	6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0.73
2	집합투자증권	CHINA AWC CSI 300 INDEX ETF	23.04	7	파생상품	미국달러 F202210	0.21
3	집합투자증권	ISHARES MSCI CHINA INDEX ETF	22.56	8	단기상품	HKD Deposit(OTTKR)	0.12
4	단기상품	CMA(신한금융투자(CMA))	5.55	9	단기상품	USD Deposit(OTTKR)	0.07
5	단기상품	증거금(NH선물)	2.70	10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일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채권형	591	532	대한민국	KRW	45.01
CHINA AWC CSI 300 INDEX ETF	수익증권	327	272	홍콩	HKD	23.04
ISHARES MSCI CHINA INDEX ETF	수익증권	318	267	미국	USD	22.5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CMA	신한금융투자	2022-09-30	66	2.40	2022-10-04	대한민국	KRW
증거금	증거금(NH선물)	-	32	0.00	-	대한민국	KRW
예금	우리은행	2008-08-26	9	2.07	-	대한민국	KRW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2021-09-29	1	0.00	-	대한민국	HKD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2021-08-10	1	0.00	-	대한민국	USD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3	81	2,222,078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40	81	2,222,078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9	81	2,222,078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30	81	2,222,078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 5. 비용 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3	
판매회사	1	0.11	1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2	0.14	2	0.14	
기타비용	0	0.01	1	0.05	
매매 증거수수료	단순매매 증거수수료	0	0.02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	0	-
	합계	0	0.02	0	0.02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거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증거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6069	0.0702	0.6771
당기	0.7816	0.0762	0.857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증거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거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거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시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이나인덱스(INDEX VA)'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